연극 인생 45년 박윤모 모노드라마 '동행'으로 새로운 도전 나섰다

'아버지' 212회 공연 이후 자전적 이야기 작품 선보여
1인 16역 … 희곡·연출까지
내일~31일 궁동예술극장

연극 인생 45년을 넘긴 배우 박윤모(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가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모노드라마'를 무대에 올린다.

한 사람의 배우가 온전히 무대를 책임지는 모노 드라마는 만만찮은 내공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는 한승원의 희곡 '아버지'를 무려 212회 공연했다. 1998년 초연 후 18년에 걸친 시간의 기록이다. 광주천변 '드맹 아트홀'에서 '여보 국기 달어'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린 후 홀로 상경, 서울 대학로 극장에서 한달 간 공연을 이어갔고, 국내 뿐 아니라 파리 기메 박물관, LA, 중국 등 해외 공연도 이어졌다.

박 감독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노드라마 '박윤모의 동행'은 지금의 박윤모를 만든 '사람들'과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다. 아픈 가족사도 보여지고, 연극쟁이로서 그의 삶의 흔적도 고스란히 담겼다. 27일 ~ 31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광주궁동예술극장.

박감독은 오랫 동안 자전적 '모노 드라마'를 꿈꿨다. 때론 희곡작가에게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며 작품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각에 직접 희곡을 써내려갔다.

"작품 제목 '동행'은 지금까지 저와 늘 함께했던 사람들,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나의 삶을 밝혀줬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의미예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할 것들이구요. 살다 보면 모두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 건설업 한답시고 말아먹은 이야기 등 어찌 보면 부끄러운 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게 다 인간 박윤모의 삶이죠."

광주 금남로 4가, 광주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종손으로 태어난 그는 말더듬이를 고치기 위해 연극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조대극회를 거쳐 극단 시민에서 활동하며 광주 연극의 주역이 됐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주인공 '일식'을 비롯해 도쿄 법정대를 나왔지만 집에는 무심했던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홀로 오남매를 키운 어머니, 동생, 아들, 제자 등 1인 16역을 해낸다.

또 그의 연극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속 인물들도 소환한다. 조대극회 시절 가장 애정을 가졌던 작품 '도적들의 무도회'의 '빼떼르보노', 극단 시민에게 제1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을 안긴 '소작지'의 주인공 '공차동', 그리고 그의 '인생작'인 '아버지'의 주인공 '김오현' 등이 '극중극' 형식으로 등장해 재미를 더한다.

"작품의 큰 줄기는 연극배우로의 삶, 국어교사를 했던 시절의 제자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구였지만 먼저 세상을 뜬 동생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박윤모에게 저런 삶이 있어구나. 저런 아픔을 겪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쩌면 저의 특별한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애틋한 존재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합니다.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했고, 좌절하지 않고 작품을 완성해 관객들과 만났다는 점에서는 뿌듯합니다."

박 감독은 작품의 '완성도'면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혼자 희곡작업, 연출 까지 모두 진행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작품을 관통하는 큰 흐름 대신 각각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옴니버스식'으로 엮다 보니 연결고리가 미약한 편이라고 했다.

"작품을 쓰면서 글 쓰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웃음) 아쉬운 점이 많죠. 하지만 200회를 넘긴 '아버지'도 끊임없는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간 것 처럼 이제 첫발을 뗀 이번 작품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 나가며 다듬을 생각이예요. 관객들의 반응도 적극 수용하구요. "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내 곁에 함께 '동행'하는 이들을 한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문의 062-511-2759, 062-222-7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6 문화전당 제야음악회 베토벤 합창 '환희의 송가'

31일 극장1 … 김석훈 사회, 광주시향·합창단 연주

사회 김석훈

소프라노 강혜정

베이스 임철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는 '20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야음악회'(이하 제야음악회)를 31일 오후 7시30분 극장1에서 연다.

배우 김석훈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야음악회는 2부로 나눠 최정상 솔리스트와 광주·전남 시립예술단체가 꾸미는 클래식, 국악, 창작곡 등 협연무대로 구성된다. 또 올해 전당에서 선보인 공연, 전시, 창제작 콘텐츠 등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1부는 대금 연주자 김상연(전남대학교 교수)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 '박쥐 서곡'을 연주한다. 또한 전당이 올해 제작한 어린이·청소년 교육공연 '작은 악사' 등을 갈라 형식으로 편곡해 뮤지컬 배우 김남호와 유주혜가 선보인다.

전통 음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 이봉근이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관현악곡으로 새롭게 편곡된 '흥부가' 중 '박타는 대목'을 선사한다.

2부에서는 국내 정상급 성악가,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나주시립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박영란의 '아리랑 판타지'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를 연주할 예정이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류정필,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 베이스 임철민, 지휘자 조장훈을 비롯해 광주·나주시립합창단이 협연 공연을 꾸밀 예정이다.

관람료 일반석 2만원, 사이드석 1만원. 공연예매·자세한 내용 홈페이지(www.acc.go.kr) 참조. 문의 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인생·신앙…이현숙 시집 '그리운 무궁화꽃' 펴내

한국문화해외교류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현숙 시인이 세 번째 시집 '그리운 무궁화꽃'(한림)을 펴냈다.

창작활동을 시작한지 5년 만에 펴낸 세 번째 작품집에서 시인은 자연, 인생, 신앙, 문학 등 다양한 소재를 정감어린 목소리로 풀어낸다. 전체적인 작품에 흐르는 기조는 시를 통해 세계와 진리 그리고 예술을 품에 안으려는 태도에 닿아 있다.

"키가 억세게 크지도 않은/ 무궁화꽃 나무에는/ 옛 우리네 부모님의/ 작지만 강한 뒤태에 숨은/ 정과 한이 서려 있다 //(중략) 화려하지 않아도/ 보면 볼수록 귀품이 있는/ 우리나라 무궁화꽃/ 그립고 그리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표제시 '그리운 무궁화꽃'은 시인의 시적 지향과 예술관이 담겨 있다. "땅 속 깊이 내린 뿌리의 힘과 대지의 기운"을 받아 피어난 '무궁화꽃'은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들의 조국을 상징한다.

또한 시집에는 자신을 시인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스승 문병란 시인과의 인연을 형상화한 작품,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 등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성찰을 이미지화한 시들이 주를 이룬다.

이현숙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자연과 문학의 품안에서 잠시 쉬었다가 삶의 현실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 시인은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나는 사랑받는 달이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겨울호 출간

인터넷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겨울호(통권 21호)가 출간됐다.

이번호는 전라도문화수수께끼를 특집으로 '법성포 굴비덕장에는 정말 파리가 없을까'를 준비했다. 법성포에는 파리가 없다는 소문을 근거로 바람세기, 염분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근거를 밝혔다.

'집중탐구' 코너 주인공은 석현 박은용이다. 1944년 진도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전 이후 벌어진 이념전쟁에서 아버지와 형을 잃은 아픔을 한평생 작품으로 승화시킨 인물이다.

'이 사람이 사는 법'에서는 '끝내 받지 못한 초등학교 졸업장'이란 글로 화제를 모은 김동기 남화토건 과장을 만났다. 한평생 운전기사로 일하며 한 길만 걸었던 그는 화순 '동복초 100년사'에 원고를 쓰고 51년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시리즈물 '전라도 마을 1박2일' 코너에서는 여산 송씨 집성촌인 고흥 동강과 대서마을을, 인물산책 코너에서는 관서별곡을 쓴 기봉 백광홍 선생을 조명했다. 그밖에 '이 작가를 주목하라'에서는 여류 서양화가 나강씨를 다뤘고 '문화화제'에서는 '피카소와 그의 열정전' 현장을 다녀왔다.

문의 062-226-10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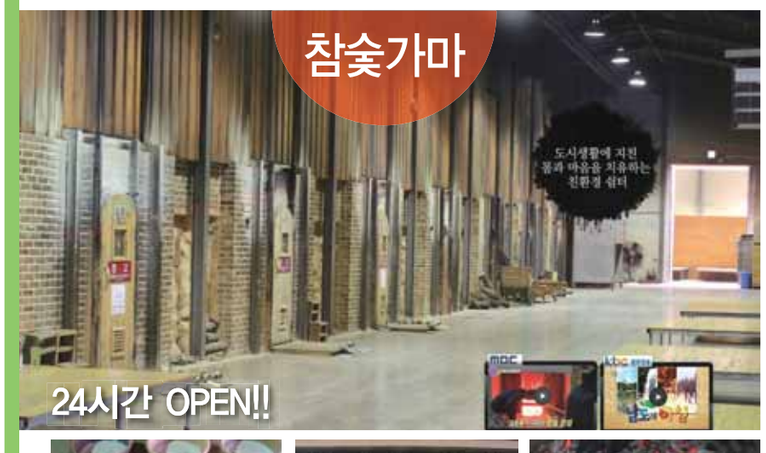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